

# 주간 통일정세

2016-29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7.17	北 리용호 '테러 피해' 프랑스 외교장관에 전문(연합뉴스)
		北, 낙서 우려로 교과서에 김씨 일가 사진 아예 없애(자유아시아방송)
		北 매체, 김정은 원수 칭호 4주년에 '민족의 영도자' 찬양(연합뉴스)
	7.18	北, 아세안 관련회의 숙소마련...리용호 외무상 참석 할 듯(연합뉴스)
		北, 해양자원 개발 주력...당의 중요한 수산정책(연합뉴스)
		북한 TV에 길이 1m 신형 무인기 등장(연합뉴스)
		'주체당' '양묘공장'...김정은 정권 '새 시대' 띄우기(연합뉴스)
	7.19	北 매체, 지방도시 야경 소개...대북제재 의식한 선전용(연합뉴스)
		北, ARF서 남의 눈치 보지 말아야...평양 주재 외교단에 촉구(연합뉴스)
	7.20	北, 35년만의 직업총동맹 대회 10월 하순 개최(연합뉴스)
北 노동신문, 탄도미사일 남한 타격지점 명시한 사진공개(연합뉴스)		
7.21	北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70돌 중앙보고회 열려(연합뉴스)	
	김정일 유훈 北 문헌에 수록 확인...김정은 모친 이례적 서술(연합뉴스)	
	北, 정전협정 63주년 앞두고 '김일성 협상술' 선전(연합뉴스)	
7.22	北, '200일전투' 50일 지나자 "우는소리 하지 말아야" 독려(연합뉴스)	
경제	7.18	北 제철소 연료 부족...한 달에 일주일만 가동(연합뉴스)
	7.19	北, 中에 돼지고기 밀수출(자유아시아방송)
		北 만경봉호, 다음 달 나진-블라디보스토크항 관광노선 취항(연합뉴스)
	7.20	北나선·中훈춘-러 블라디보스토크 연결 관광노선 내달 개통(연합뉴스)
		中, 단둥-통화 경제벨트 건설 나선다...북중경협에 영향줄 듯(연합뉴스)
	7.21	러시아 건축회사, 北 근로자 우수하다...인터넷서 홍보(연합뉴스)
7.22	북한, 십자가 표식 상품 반입 불허(연합뉴스)	
	北, 스포츠로 외화벌어...파키스탄에 코치 파견 제안(연합뉴스)	
사회 문화	7.18	북한 작년 GDP 1.1% 감소 추정...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연합뉴스)
	7.20	김정은의 스위스계 시계사랑 위협받아...두 달째 대북수출 전면(연합뉴스)
외교 국방	7.16	北 40대 여성, 200일 전투 참여 강요에 목매 자살(연합뉴스)
		北, 자국서 제작된 영화 10여 편 시청·유포금지(연합뉴스)
외교 국방	7.16	EU, 北 돈세탁·테러자금지원 위험국가 지정(연합뉴스)

	북핵 개발 가장 강력히 규탄, ASEM 의장 성명 채택(연합뉴스) 北,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에 편지 “특정국들 이해만 대변” 비판(연합뉴스)
7.17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의심 활동’…한미 정보당국 예의주시(연합뉴스)
7.18	北, 한미일 외교차관 회동에 “美 패권야망 드러나” 비난(연합뉴스) 北 외무성, ‘ASEM 북핵 규탄’ 의장성명에 “터무니없다” 반발(연합뉴스) 佛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회람…개인 3명 제재대상 추가(연합뉴스) 北, 이달 안에 5차 핵실험 도발할까…김정은 다목적 포석 염두(연합뉴스)
7.19	美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책임 물을 것(연합뉴스) 美공화, 北은 ‘금일가 노예국가’…北 변화 불가과 서둘러야(연합뉴스) 北, 리퍼트 美대사 한국영공 비행에 ‘불망나나’ 비난(연합뉴스) 日정부, 北미사일 발사에 항의…매우 문제 있는 행동(연합뉴스) 日방위상, 北탄도미사일발사는 안보상 도발…용인불가(연합뉴스) 英 메이, 러·北 핵위협 매우 실질적…핵억지력 유지 강조(연합뉴스)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사드배치 결정에 ‘무력시위’(연합뉴스) 美군당국, 北이 쏜 3발 중 1발은 중거리 노동미사일(연합뉴스) 김정은 미사일 발사 다음 행보는…핵실험·국지도발 가능성(연합뉴스)
7.20	北,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보유 비난…미군이 1차타격대상(연합뉴스) 케리 美국무 라오스 ARF 참석…北리용호 별도면담 계획 없어(연합뉴스) 美백악관, 北미사일도발 강력비난…국제사회 그늘서 나오라(연합뉴스) 대북 수출입 엄격 통제, 우루과이 이행보고서 회람(자유아시아방송)
7.21	北, 美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에 “도적이 매 드는 격” 비난(연합뉴스) 美국방부, 北 선제타격 언급에 “긴장고조 행동 자제하라”(연합뉴스) 美 전문가, 북한서도 터키식 군부 쿠데타 가능성 배제 못해(연합뉴스) 日방위백서 “北, 탄도미사일 기술 획득 및 고도화 추구”(연합뉴스) 北, 英총리 “북한으로부터 핵위협 받고 있다” 발언 비판(연합뉴스) 베트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12명 추가 입국금지(연합뉴스)
7.22	北미사일 한발 초기에 폭발…핵기폭장치 실험 거짓 가능성(연합뉴스) 美 ISIS, 북한 미공개 옛 우라늄농축시설 의심장소 발견(연합뉴스) 軍, 北 19일 발사 탄도미사일은 노동 2발·스커드 1발(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7. 17.

##### ■ 北리용호 ‘테러 피해’ 프랑스 외교장관에 전문(연합뉴스)

-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와 관련해 장-마크 에로 프랑스 외교 장관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전문에서 테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함. 이어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이번 사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프랑스 대혁명기념일인 14일 밤 프랑스 남부 휴양지 니스에서 19t짜리 대형 화물트럭 1대가 관광객에 돌진해 질주하면서 최소 84명이 숨지고 202명이 다침.

2016. 7. 18.

##### ■ 北, 아세안 관련회의 숙소마련…리용호 외무상 참석 할 듯(연합뉴스)

- 이달 말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ASEAN)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북한이 현지에서 숙소를 잡은 것으로 알려짐.
- 외교 소식통은 18일 “북측이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대표단이 묵을 숙소를 현지에서 잡은 것으로 안다”고 전함.
- 외교 소식통은 “리 외무상이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다. 공식행사

2016. 7. 20.

##### ■ 北, 35년만의 직업총동맹 대회 10월 하순 개최(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자 단체인 직업총동맹(직맹) 대회를 35년 만에 개최할 예정임.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가 주체105(2016)년 10월 하순에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대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6차 대회 이후 직업동맹이 당의 위업에 충직한 대중적 정치조직으로 더욱 강화되어온 35년의 발전노정을 총화하고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 총돌격전에서 직맹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게 된다”고 설명함.
- 직맹 대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1981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임.

2016. 7. 21.

■ **北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70돌 중앙보고회 열려(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결성 70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2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함.
- 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들,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관계부문 일꾼들, 비전향 장기수 등이 참석함.
- 김기남 부위원장은 기념보고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지주통일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면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문제해결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또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은 민족 내부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체제대결, 제도통일 망상을 단호히 짓부쉬버리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7. 17.

■ **北, 낙서 우려로 교과서에 김씨 일가 사진 아예 없애(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학생들의 낙서를 우려해 교과서에서 김씨 일가의 초상화나 사진을 아예 없앤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언론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17일 보도함.
- 아시아프레스가 북한의 초급·고급 중학교(우리의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75권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 관련 내용은 있었지만 김씨 일가의 초상화나 사진 등은 전혀 없었음.
- 이에 대해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는 “혹시

- 훼손되거나 낙서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없앤 것 같다고 (북한 주민들이) 말했다”고 전함. 또한 교과서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됨.
- 이시마루 대표는 “김정일 사망 직후부터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며 “예를 들어 내부 구호 간판들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다 바뀌고 교과서 안에서도 김정은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도 시작했다”고 설명함.

2016. 7. 18.

■ **北, 해양자원 개발 주력...당의 중요한 수산정책(연합뉴스)**

- 북한은 18일 ‘해양자원개발전략’에 따라 대형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등 해양자원 보호·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광일환 조선해양학회 서기장은 이날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늘리며 개발 이용하는 것은 노동당의 중요한 수산정책의 하나”라면서 “바다 수산자원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 일정한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은 지난해 7월 새로운 ‘해양자원개발전략’을 세웠다면서 육해운성, 수산성, 기상수문국 등 관계 기관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북한 TV에 길이 1m 신형 무인기 등장(연합뉴스)**

-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길이가 1m에 불과한 신형 무인기(UAV)를 공개함.
-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4일 ‘위대한 동지 1 - 선군의 한길에서’라는 제목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난 2013년 8월 당시 인민군 과학기술전람관 시찰 관련 기록영화를 내보냄.
- 영상이 3년 전 처음 공개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양산해 실전 배치했을 거리는 추정도 나옴.

2016. 7. 21.

■ **김정일 유훈 北문헌에 수록 확인...김정은 모친 이례적 서술(연합뉴스)**

- 2011년 12월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간부들에게 남긴 유언이 당 출판사 발행 문헌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함.
- 마이니치는 자사가 입수한 ‘김정일 선집 증보판 25권’에 이른바 ‘10·8 유훈’으로 알려진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이 12쪽 분량으로 들어가 있다고 전함. 2011년 10월 8일과 사망 이틀 전인 같은 해 12월 15일, 2차례에 걸쳐 당 중앙위원회에서 간부들과 진행한 담화를 정리한 문서라는 설명이 부제로 적혀있다고 신문은 소개함.

- 10·8 유훈에 북핵 6자회담을 ‘핵보유국 공식화 회의’로 규정하는 등 외교 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도 과거에 나왔지만 이번에 확인된 문서는 대외전략에 대한 구체적 지시는 거의 담고 있지 않고 김정은 체제로의 이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소개함.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7. 17.

### ■ 北매체, 김정은 원수 칭호 4주년에 ‘민족의 영도자’ 찬양(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은 17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한 지 4주년을 맞아 김정은을 ‘민족의 영도자’라며 일제히 찬양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백승의 역사를 빛내여 가시는 위대한 선군영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민족의 영도자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행운이며 영광”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날 별도의 글을 통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최악의 역경 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재적인 사상이론적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오시었으며, 우리 조국 역사에 특기할 민족사적 사변들과 천지개벽의 희한한 기적들을 연이어 안아오시었다”고 치켜세움.
-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도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이날이 있어 우리 혁명의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사회주의 강국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기상이 온 누리에 높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김정은의 업적을 칭송함.

2016. 7. 18.

### ■ ‘주체당’ ‘양묘공장’…김정은 정권 ‘새 시대’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시대로 ‘주체당’과 ‘양묘공장’을 띄우며 자강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북한 대남 라디오방송 ‘통일의메아리’는 1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평양곡산공장에서 만든 옥당(옥수수 녹말로 만든 당분)을 보아주신 원수님께서 우리의 원료로, 우리 식의 가공방법으로 뽑은 당이라고 하여 주체당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빛내주시었다”고 밝힘.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제재를 내부 자강력을 활용해 돌파하겠다는 의지

를 내외에 보여주면서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방침을 따라올 것을 촉구하기 위한 일종의 선전 방식”이라고 분석함.

■ **北 매체, 지방도시 야경 소개…대북제재 의식한 선전용(연합뉴스)**

- 북한의 선전 매체가 잇달아 지방도시 야경을 소개하며 체제 선전에 나선.
-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오늘’은 1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방의 도시에 펼쳐진 꺼질 줄 모르는 불야경’이라는 글에서 자강도 장자강변에 있는 강계시의 밤 풍경을 소개함.
- 북한 매체의 이러한 모습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경제난’, ‘전력난’이 극심하지 않음을 과시하고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도 유치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됨. 앞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수출이 어려워진 석탄을 화력발전소 가동용으로 돌리면서 내부 전력 사정이 나아졌다는 일본 도쿄신문 보도가 나오기도 함.

2016. 7. 19.

■ **北, ARF서 남의 눈치 보지 말아야…평양 주재 외교단에 촉구(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핵 규탄과 대북제재에 맞서 잇따라 자국 주재 아시아 외교사절을 초청해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이 18일 최근 아시아유럽수뇌자회의(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에서 조선반도 문제의 본질을 심히 왜곡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아시아 나라 외교대표들을 위한 정세통보모임을 조직했다”고 19일 보도함.
-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2일에도 ‘정세통보모임’을 진행하고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긴 바 있음.

2016. 7. 20.

■ **北 노동신문, 탄도미사일 남한 타격지점 명시한 사진공개(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스킨드와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무기 개발 수준을 과시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트(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도하시였다”며 1면에 관련 사진 8장을 게재함. 미사일 발사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날 이뤄진 스킨드-C와 노동미사일 발사 장면을 담은 것으로 추정됨.

- 노동신문은 “이번 훈련은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하였다”고 보도함.

2016. 7. 21.

■ 北, 정전협정 63주년 앞두고 ‘김일성 협상술’ 선전(연합뉴스)

-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3주년을 앞두고 회담 당시의 일화라고 소개하며 김일성 주석의 ‘협상술’을 선전함.
- 노동신문은 21일 ‘정전담판장에 나타난 승용차리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시기 진행된 정전담판(회담)은 총과 대포로 싸우는 전투에 못지 않게 복잡하고 어려운 하나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었다”며 “미제의 음흉한 기도를 분쇄하고 거만한 코대(코트대)를 꺾어놓은 승용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소개함.
- 북한은 한국전쟁이 ‘미국의 사주를 받은 남조선’의 침략으로 시작됐고, 이를 격퇴했다고 선전함. 또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름.

2016. 7. 22.

■ 北, ‘200일전투’ 50일 지나자 “우는소리 하지 말아야” 독려(연합뉴스)

- 북한이 속도전 사업인 ‘200일 전투’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섬.
- 속도전은 최단기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양적·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 나가는 북한의 전투적 사업방식을 말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1면 사설에서 “200일 전투에 진입한 때로부터 50일이 지났다”면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은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진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녀야 한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지난 5일 ‘200일 전투’ 첫 달 성과를 발표하며 전국 공업 총생산액이 애초 계획의 1.2배를 달성했다고 주장함.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조치

2016. 7. 21.

### ■ 북한, 십자가 표식 상품 반입 불허(연합뉴스)

- 북한 세관 당국이 최근 자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상표나 겉포장에 십자가나 십자가와 유사한 표식이 있으면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함.
- 평양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는 한 화교는 RFA에 “중국에서 물건을 살 때 이제는 ‘열십자(十字)’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함.
- 북한은 모든 종교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 인권운동과 탈북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고 RFA는 설명함.

## 다. 경제 상황

2016. 7. 18.

### ■ 北 제철소 연료 부족...한 달에 일주일만 가동(연합뉴스)

- 북한의 주요 제철소인 함경북도 청진시 김책제철소가 연료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함.
- 청진시 한 소식통은 RFA에 “김책제철소가 가동돼 굴뚝에서 연기를 뿜는 날은 한 달에 7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유엔 제재의 여파인지 요즘 중국에서 코크스(가루 형태의 석탄을 뭉쳐서 덩어리로 만든 것) 수출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소식통은 “최근에도 김책제철소의 용광로에 쓰일 연료로 중국에서 코크스를 수입하고 있다”며 “남양세관을 거쳐 중국에서 수입해 들이는 코크스는 한 번에 60t 차량 9~10대 정도로 대략 600t 정도”라고 전함.

2016. 7. 22.

### ■ 북한 작년 GDP 1.1% 감소 추정...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연합뉴스)

- 북한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옴.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2일 밝힘.
- 이에 따라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처음으로 경제가 뒷걸음질한 것으로

분석됨. 북한과 남한의 1인당 소득 격차는 2014년 21.3배에서 지난해 22.2배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 진전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됨.

##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7. 19.

### ■ 北, 中에 돼지고기 밀수출(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밀수꾼들이 중국에 돼지고기를 밀수출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양강도 소식통은 RFA에 “북한의 돼지고기 1kg(두 근) 값은 10 위안(1천690원)으로 중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시세 차를 이용해 북한 변경지역 주민(밀수꾼) 중에는 북한의 돼지고기를 중국에 밀수출해 돈을 벌고 있다”고 밝힘.
- 소식통은 “북중 양측이 최근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 인근 주민들의 생계형 밀수출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힘 있는 자들을 등에 업은 권력형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함.

### ■ 北 만경봉호, 다음 달 나진-블라디보스토크항 관광노선 취항(연합뉴스)

- 북한의 만경봉호가 다음 달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오가는 유람선 관광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여유국(관광국)은 RFA에 “지난 12일 북한 나선시 관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북중러) 3국간 새 관광 합작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훈춘-나선-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관광노선을 이르면 내달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길이 102m, 폭 14m, 3천500t 규모의 이 화객선은 북송사업이 중단된 1984년부터는 주로 화물선으로 사용되다 2006년 이후 일본 입항이 중단됐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자 대북제재 차원에서 만경봉호의 자국 입항을 금지함.

### ■ 北나선·中훈춘·러 블라디보스토크 연결 관광노선 내달 개통(연합뉴스)

- 북한 나선시와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있는 국제 관광노선이 내달 개통됨.

- 이들 3개 도시를 연결하는 관광노선 개통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우회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광분야 협작을 통한 경험에 나선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 접경지역 소식통은 “새 관광노선 개발은 관광 성수기를 맞아 시행되는 측면도 있지만 북중러 3국이 대북제재를 피해 협력을 강화하는 통합적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말함.

2016. 7. 20.

■ **中, 단둥-통화 경제벨트 건설 나선다…북중경협에 영향줄 듯(연합뉴스)**

- 북한과 접경인 중국 지린(吉林)성의 통화(通化)시와 랴오닝(遼寧)성의 단둥(丹東)시가 합작해 북중 접경 개발에 착수함.
- 20일 현지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두 도시는 최근 '통단(通丹)경제벨트' 건설을 위한 전략적 합작원칙에 동의하고 협의서에 정식 서명함.
- 북중접경의 한 소식통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경한 두 지역이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다짐하고 있어 북한경제와도 접점을 형성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북중경협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봄.

■ **러시아 건축회사, 北 근로자 우수하다…인터넷서 홍보(연합뉴스)**

- 러시아의 한 건축회사가 현지 고용한 북한 인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리먼트코리아’라는 회사는 최근 웹사이트(remontkorea.ru)를 통해 “유능한 북한 인부들이 건물의 실내외 개보수 공사를 훌륭히 해낼 것”이라며 “값싼 임금과 양질의 서비스로 아파트를 수리해 드린다”고 선전 중이라고 방송은 전함.
- 리먼트코리아 웹사이트는 북한 인부들의 단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북한 인부들이 7년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일해 왔다”고 주장함.

2016. 7. 21.

■ **北, 스포츠로 외화벌이…파키스탄에 코치 파견 제안(연합뉴스)**

- 북한이 파키스탄에 선수 및 코치 파견을 골자로 하는 스포츠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김태섭 파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는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안 리아즈 후세인 피르자다 주(州) 조정부 장관을 만나 북한과 파키스탄 간 교류 확대를 제안함.

- 이런 제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포츠 분야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RFA는 전함.

2016. 7. 22.

■ **김정은의 스위스제 시계사랑 위협받아…두 달째 대북수출 전무(연합뉴스)**

- 지난 5월 스위스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 이후 두 달째 스위스 시계의 대북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스위스시계산업협회(FHS)는 RFA에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스위스 시계의 대북수출이 전혀 없었다고 밝힘.
- RFA는 “지난 5월 스위스 정부가 엄격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단행한 뒤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고위층의 유별난 스위스제 시계 사랑이 위협받고 있다”며 “스위스제 시계의 대북 수출 ‘제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5월 도입된 스위스 정부의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가 엄격히 이행 중이라는 방증”이라고 해석함.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7. 20.

■ **北, 자국서 제작된 영화 10여 편 시청·유포금지(연합뉴스)**

- 북한이 자국에서 제작된 예술영화 10여 편에 대해 최근 시청 및 유포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북한의 한 소식통은 RFA에 “최근 조선(북한) 예술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 ‘봄날의 눈석이’, ‘대흥단군 책임비서(속편 포함), ‘한 여학생의 일기’ 등 10여 편의 영화가 금지물로 지정됐다”며 “예전에도 영화나 노래가 금지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영화가 금지되기는 처음”이라고 말함.
- 또 다른 소식통은 “과거 김정일 시절에도 탐관오리와 양반제도에 저항해 평민들을 규합한 역사인물 림격정(임격정)을 다룬 영화의 상영이 금지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이 소식통은 “영화 ‘대흥단군 책임비서’와 ‘한 여학생의 일기’는 각각 남자 주인공과 주연 여배우가 숙청당한 장성택의 연줄(측근)이어서 상영이 금지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RFA는 덧붙임.

## 나. 시장관련

###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2016. 7. 18.

### ■ 北 40대 여성, 200일 전투 참여 강요에 목매 자살(연합뉴스)

- 최근 북한 양강도 김정숙(신파)군에서 40대 여성이 '200일 전투' 참여를 강요받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18일 보도함.
- 양강도 소식통은 이 매체에 “이달 초 김정숙군 장항리에서 몸이 아픈 40대의 한 여성이 일하러 나오라는 보위부와 보안부 요원들의 지속적인 강요에 못 견뎌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함.
- 소식통은 “이번 200일 전투는 당국이 불시에 검열하는 경우가 많아 보위부와 보안부 요원들이 아픈 주민을 봐줄 수가 없다”면서 “(김정은)이 ‘인민애’를 떠들고 있지만, 결국 (당국이) 주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덧붙임.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6. 7. 18.

### ■ 北, 한미일 외교차관 회동에 “美 패권야망 드러나”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17일 최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대해 “지역과 세계에 대한 군사적 패권 야망을 기어코 실현하려는 미국의 기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계기”라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의 문답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과 3각군사동맹 조약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역 내 군사적 패권을 담보하려는 것은 오래전부터 품어온 미국의 야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세계적 범위에서 핵전쟁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

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며 질량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함.

2016. 7. 19.

■ **美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책임 물을 것(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19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규탄함.
-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와 최근에 이뤄진 미사일 실험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말함.
- 로스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 **美공화, 北은 ‘김일가 노예국가’…北 변화 불가피-서둘러야(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Kim family's slave state)’라고 공식으로 규정하고 체제 변화의 불가피성을 공식 거론함. 공화당은 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의 변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압박함.
- 공화당은 먼저 “우리는 환태평양의 모든 국가, 그리고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동맹을 맺은 국가들과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긴밀하게 묶여 있는 태평양의 한 국가”라면서 “우리는 이들 국가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공화당은 특히 “우리는 중국 정부가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 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또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 **北, 리퍼트 美대사 한국영공 비행에 ‘불망나니’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2일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를 타고 한국 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불망나니짓’ 등의 표현으로 거칠게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기지와 문답에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현시점에서 미국의 대조선정책 작성과 실행에 직접 관여하는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가 전투기를 타고 돌아친 것 자체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들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시수하기 위한 자위적 핵대응 조치들을 보다 강도 높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위협함.

2016. 7. 20.

■ **北,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보유 비난…미군이 1차 타격대상(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 있는 점을 비난하며 주한미군이 북한군의 ‘1차 타격대상’이라고 위협함.
-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황당무계하고 파렴치한 구실을 내대고서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사코 거머쥐고 있으려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흉악한 속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담화는 “우리 군대는 이미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이 1차 타격대상이며 그에 추종하는 괴뢰역적들의 운명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엄숙히 공개한 상태”라며 “미국은 남조선 영구 강점 기도를 포기하고 당장 제 소굴로 돌아가야 한다”고 위협함.

■ **케리 美국무 라오스 ARF 참석…北리용호 별도면담 계획 없어(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26일(이하 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미 국무부가 19일 발표함.
- 미 국무부는 또 케리 장관이 이번 ARF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별도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힘
-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삼아 양자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美백악관, 北미사일도발 강력비난…국제사회 그늘서 나오라(연합뉴스)**

- 또다시 발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강력하게 비난한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이번 일과 최근에 있었던 다른 미사일시험들을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강조함.
-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돼 있다”고 지적한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들(북한)이 국제사회의 그늘에서 나와 다시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2016. 7. 21.

■ **北, 美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에 “도적이 매 드는 격”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21일 미국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한 데 대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진행한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놓고 미국에서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의 공식인물들이 나서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위반’이니 ‘도발’이니 하는 나발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앞서 미국은 북한이 지난 19일 스커드 또는 노동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탄도미사일 기술의 이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를 강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 ■ 미국방부, 北 선제타격 언급에 “긴장고조 행동 자제하라”(연합뉴스)

- 북한이 한국의 ‘항구와 비행장을 선제타격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가 긴장고조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함.
- 제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는 데 집중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힘.
- 미국 백악관은 “이번 일과 최근에 있었던 다른 미사일시험들을 강력하게 비난한다”며 “그들(북한)이 국제사회의 그늘에서 나와 다시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포함.

#### ■ 美 전문가, 북한서도 터키식 군부 쿠데타 가능성 배제 못해(연합뉴스)

- 북한의 권력이 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에 불만을 가진 군부가 터키식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옴.
- 마이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ISS) 미국소장은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군의 많은 고위 간부가 숙청되고 일부가 처형되는 상황에서 장교들은 자신의 역할과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반면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비영리기구 IDA의 오희단(미국명 케이티 오) 연구원은 “북한에서 군대는 김 씨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불과하며 국제화와 (조직의) 정교성 모두 떨어진다”며 “쿠데타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분석함. 오 연구원은 또 “북한에 김 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이 없고 과거의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주민들에 정보와 진실,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함.

## 나. 북·중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다. 북·일 관계

2016. 7. 19.

### ■ 日정부, 北미사일 발사에 항의...매우 문제 있는 행동(연합뉴스)

- 북한이 19일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 확보 관점에서 매우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논평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의사를 표시하고 싶다”며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함.

### ■ 日방위상, 北탄도미사일발사는 안보상 도발...용인불가(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19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상의 도발행위”라고 비판함.
- 나카타니 방위상은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새벽 북한이 탄도 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데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안보상의 도발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함.
- 나카타니는 “정부로서는 미국 한국 등 관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가며 북한에 자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 7. 21.

### ■ 日방위백서 “北, 탄도미사일 기술 획득 및 고도화 추구”(연합뉴스)

- 내달 나올 올해판 일본 방위백서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함.
- 교도가 소개한 백서 개요는 지난 2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획득과 기술 고도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 일본 방위성은 내달초 방위백서 내용을 확정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전망이다.

## 라. 북·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7. 16.

### ■ EU, 北 돈세탁·테러자금지원 위험국가 지정(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위험이 큰 나라로 공식 지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EU 집행위원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에 맞서는 데 심각한 결함이 있는 11개 위험국가에 포함했다며 “위험국가 지정은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근절하려는 EU의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미국 재무부도 지난 6월 1일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음.

### ■ 북핵 개발 가장 강력히 규탄, ASEM 의장 성명 채택(연합뉴스)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의장 성명이 16일 채택됨.
-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ASEM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장 성명에서 북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여타(대북제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힘.
- 의장 성명은 북한 핵,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고 적시한 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며 동북아는 물론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정함.
-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관련 조달행위(procurement) 및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다”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 복귀할 것을 강조함.

- 이는 ASEM 역사상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가장 강력한 규탄 내용으로 다른 지역 현안들에 비해 더 상세하고 길게 적혀 있다고 청와대는 전함.

■ **北,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편지 “특정국들 이해만 대변” 비판(연합뉴스)**

- 북한 김천균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후안 마누엘 베가 세라노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FATF가 조선(북) 문제에서 현실을 심히 왜곡하고 특정한 나라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했다”고 비판함.
- 김 총재의 이번 편지는 지난 18~24일 부산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제작에 활용할 위험이 있으니 북한과 거래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권고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임.
-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6개국이 가입해 있음.

2016. 7. 18.

■ **北 외무성, ‘ASEM 복핵 규탄’ 의장성명에 “터무니없다” 반발(연합뉴스)**

- 북한이 자국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의장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섬.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제11차 아시아·유럽 수뇌자회의에서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든 의장성명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면서 “미국의 극단적인 반공화국압박소동에 편승하여 조선반도(한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무분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가 강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그것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광란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라며 “우리는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위력으로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佛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회람…개인 3명 제재대상 추가(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프랑스가 제출한 이행보고서가 최근 안보리에서 회람 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RFA는 안보리에서 프랑스의 이행보고서가 회람 후 공개될 예정이라면서 “프랑스는 안보리 결의 준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프랑스가 취한 독자제재에 따른 광범위하고

강력한 이행사항을 포함했다”고 밝힘.

- 프랑스가 제재대상으로 추가한 3명의 이름과 직책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음.

2016. 7. 19.

■ **英 메이, 러·北 핵위협 매우 실질적...핵억지력 유지 강조(연합뉴스)**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핵 억지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위협을 거론함.
- 메이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트라이던트 잠수함 현대화’ 추진 여부에 대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의회에서 “일각에서 핵 억지력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핵 억지력은 반세기 가까이 우리 국가 안보와 방위에 절대적인 부분이었다. 이 특별한 길을 멈추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함.
- 메이 총리는 핵 억지력 포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가까이 핵 공격을 승인할 것이라고도 함.

2016. 7. 20.

■ **대북 수출입 엄격 통제, 우루과이 이행보고서 회람(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우루과이의 이행보고서(사진)가 최근 안보리에서 회람된 것으로 나타남.
- 우루과이의 이행보고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NHRK)가 지난 달 22일 “북한이 자국 선원과 어부를 국외에 파견하기 위해 우루과이의 수도이자 남미 주요 항구 중 하나인 몬테비데오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밝혔기 때문임.
-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우루과이 정부가 유엔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와 관련한 자산 동결 및 압류를 위해 관련법 초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세탁 명단과 안보리 제재 명단을 대조 확인해 관련 자산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점임. 또 제재 대상 북한인의 입국을 막기 위해 국제경찰인 인터폴과 협력하고 있고, “Lucia”라는 통관 전산체계를 이용해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수출입품 엄격히 관리한다는 내용도 눈길을 끄.
- 우루과이 정부는 지금까지의 이행 사례로 북한과의 무기 관련 물품 수입이나 실험, 수리 등 거래를 일체 지원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 대북 교역이 현격히 줄어들어 2015년까지 연간 300달러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힘.

- 유엔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우루과이가 안보리 의장국이었고, 당시 엘비오 로셀리 우루과이 대사가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언론성명에서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결의를 채택키로 했다고 발표했고 실제 안보리가 3월2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며 우루과이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설명함.

2016. 7. 21.

■ **北, 英총리 “북한으로부터 핵위협 받고있다” 발언 비판(연합뉴스)**

- 북한은 21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18일 핵 억제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위협을 거론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영국 수상(총리)은 국회에서 있는 자국의 신행전략 핵잠수함 건조계획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자기 나라가 로씨야(러시아)와 북조선(북한)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실제적 핵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그러면서 “영국이 현 세대와 후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미국이 몰아오고 있는 극단적이며 실질적인 핵전쟁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핵억제력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베트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12명 추가 입국금지(연합뉴스)**

-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개인 12명에 대해 추가로 입국금지 등 여행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6월 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명단을 관련 기관에 모두 보내 여행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힘.
- 베트남 정부는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대북제재 대상인 개인, 단체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가 있는지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음.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7. 17.

■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의심 활동’…한미 정보당국 예의주시(연합뉴스)**

- 북한이 한미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발표(8일) 이후부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다수의 트럭과 인력 등을 동원해 모종의 활동을 벌이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짐.

-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주 초 미국 미사일 전문가가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이달 7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주장했을 때만 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번 움직임은 예의 주시하고 있음.
- 북수의 정보 당국 소식통은 17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그간 보이지 않던 다수의 트럭과 인력이 지난 8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핵실험 준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풍계리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2016. 7. 18.

■ **北, 이달 안에 5차 핵실험 도발할까...김정은 다목적 포석 염두(연합뉴스)**

-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어 이달 안에 5차 핵실험 도발에 나설지 주목됨.
- 일본 교도통신은 17일 “이번 달 내로 핵실험을 강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미일 3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북수의 한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함. 정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서는 “그 외 특별한 정보는 없다”고 덧붙임.

2016. 7. 19.

■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사드배치 결정에 '무력시위'(연합뉴스)**

- 북한이 19일 새벽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함.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40분께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합참은 “비행거리는 500~600km 내외로,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 지역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덧붙임.
- 군 관계자는 “북한이 사드가 배치될 성주 등을 타격하기 위해 동원할 가능성이 가장 큰 무기가 스커드 미사일”이라며 “사드가 배치되면 패트리엇과 함께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한 다층 요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함. 합참 관계자는 “군은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함.

■ **美군당국, 北이 쏜 3발 중 1발은 중거리 노동미사일(연합뉴스)**

- 미국 군 당국은 북한이 19일 오전에 동해 쪽으로 쏜 탄도 미사일 3발 중 한 발은 중거리 노동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힘.
- 교도통신에 의하면, 미국 전략군은 현지시간 18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3발 중 2발은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이고 1발은 일본도 사정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 ‘노동’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

■ **김정은 미사일 발사 다음 행보는…핵실험·국지도발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한미 군 당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결정 이후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지에 관심이 쏠림.
-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40분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사드 배치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상황이라 핵실험을 감행해도 제재를 약하게 받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27일 전승절 직전인 다음 주 초라도 실시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우려함.

2016. 7. 22.

■ **北미사일 한발 초기에 폭발…핵기폭장치 실험 거짓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 중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지 못한 1발은 초기 상승단계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짐.
-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당시 핵기폭장치 실험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핵기폭장치 실험은 통상 하강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임.
-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는 핵기폭장치 실험에서 실패했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언젠가 이런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 **美 ISIS, 북한 미공개 옛 우라늄농축시설 의심장소 발견(연합뉴스)**

- 북한의 영변 핵단지 근처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옛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장소가 발견됐다고 미국의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21일(현지시간) 밝힘.
- ISIS는 이 시설이 지금도 계속 농축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할 정보는 없다면, 영변 이외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한다면 이곳이 유력한 장소라는 미국 정부 내부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고 전함.

- ISIS는 북한이 군사시설인 지하 전투기 공장에 농축시설을 들여놓음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풀이함.

■ **軍, 北 19일 발사 탄도미사일은 노동 2발·스커드 1발(연합뉴스)**

- 군 관계자는 22일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노동미사일 2발, 스커드 미사일 1발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20일 자에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실음. 왼쪽에는 스커드 미사일, 오른쪽에는 노동미사일이 각각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장면이 담김.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9일 브리핑에서는 “스커드 계열 또는 노동 미사일”이라고만 했을 뿐 각 미사일이 몇 발씩인 지는 공개하지 않았음. 당시 미국 전략사령부는 3발 중 두 발은 스커드 계열 미사일, 나머지 한 발은 노동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7.18		<일문일답> 미군, 한국 배치시 사드 안 전구역 설정 검증할 것(연합뉴스)
			美백악관 "사드 문제, 한국인 이해 부합 하도록 진행 희망"(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7.19	한·중, 올해 두 번째 중국 불법어선 공동감시(연합뉴스)	
	7.22		중국, 북한 제재 이행보고서에서도 “한반도 사드 반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7.16		아베 총리, 차대통령에 사드 배치 지지 표명(연합뉴스)
	7.19		日외무차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내달 말 일본 개최 조율 중(연합뉴스)
	7.20		아사히 “위안부재단, 27일 이사회 열어 공식발족”(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7.16		러 총리, 한반도 대규모 위기 가능성 점 점 현실화(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7.18	남중국해 갈등, 미중 해군사령관 베이징서 회동(연합뉴스)	
	7.19		중사령관, 미사령관에 “도발 무섭지 않아...인공섬 포기 안 해”(연합뉴스)
	7.21		<美공화 전대> 中, 공화당에 견제구... 근거 없는 비난 말라(연합뉴스)
	7.22		수치, 미국 앞서 8월 중국 방문 추진...미중, 수치모시기 각축(연합뉴스)
			中 남중국해 관할전구, 연일 최신무기 공개...美 겨냥 위력 과시(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7.20		<美공화 전대> 日, 트럼프 후보에 “누가 되더라도 美와 협력”(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7.16	미러 외무 모스크바 회담 별 성과 없이 끝나(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7.17	中, 남중국해 우군 캄보디아에 6천억 원 지원...中日, 구애전(연합뉴스)	
	7.18	중해경선 센카쿠해역 진입...남중국해 영유권 中패소 결정후 처음(연합뉴스)	
	7.20	교도 “일본, ARF 계기 중국과 외교장관 회담 추진”(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7.21	러 전문가 “러-중, 사드 한국배치 대응해 통합MD 구축 검토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6. 7. 18.

##### ■ <일문일답> 미군, 한국 배치 시 사드 안전구역 설정 검증할 것(연합뉴스)

- “미국은 그 지역(성주)내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됐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 미군 관계자는 18일 콰의 미국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한국 언론에 공개한 뒤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사드 배치 지역은 미사일방어국(MDA)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미군 장병이 매일 사드 체계와 가깝게 생활하며 운용해야 하고, 보호할 주민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함.
- 취재진 방문에 동행한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은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선 북한 외에는 (탐지 구역에서) 다 제외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위협으로 상정도 안 돼 있다”고 강조함.

2016. 7. 22.

##### ■ 美백악관 “사드 문제, 한국인 이해 부합하도록 진행 희망”(연합뉴스)

-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할 한국 내 후보지가 발표된 뒤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이어지는데 대해 미국 백악관이 “한국인들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임.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이해관계와 선호도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이런 보호수단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간밀히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힘.
- 어니스트 대변인은 사드 문제에 대해 “한국과 간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갈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인 한국의 안전과 안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덧붙임.

#### 나. 한·중 관계

2016. 7. 19.

##### ■ 한·중, 올해 두 번째 중국 불법어선 공동감시(연합뉴스)

-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6일 중국 불법어선의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한국과

중국 지도선이 공동 순시 활동을 한다고 19일 밝힘.

-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임.
-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공동순시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천638t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천106t급 1112함이 참여함.

2016. 7. 22.

■ **중국, 북한 제재 이행보고서에서도 “한반도 사드 반대”(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북한 제재 결의안(2270호) 이행보고서에서도 한반도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함.
- 21일(현지시간)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행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쳐짐.
- 한 외교관은 “북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려고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다만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언론성명채택 등에서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다. 한·일 관계**

2016. 7. 16.

■ **아베 총리, 차대통령에 사드 배치 지지 표명(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에 지지를 표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함.
- 교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이날 울란바토르에서 있었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갈라 만찬에서 옆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는 생각을 전함.
-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한·미·한일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고 작년 12월 도출된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힘.

2016. 7. 19.

■ **日외무차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내달 말 일본 개최 조율 중(연합뉴스)**

- 한국·중국·일본 3국 외교장관 회담을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9일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인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올해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외교장관 회담 일정에 관해 기자들에게 이같이 설명함.
-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이를 계기로 중일 외교장관의 양자 회담을 열어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분석함.

2016. 7. 20.

■ **아사히 “위안부재단, 27일 이사회 열어 공식발족”(연합뉴스)**

- 한일 정부 간 합의(작년 12월 28일)에 따른 군위안부 지원 재단(화해·치유재단)이 오는 27일 정식 발족한다고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20일 보도함.
- 27일 열리는 위안부 지원 재단의 첫 이사회에서 김태현 성산여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고 아사히는 전함. 재단은 이르면 8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사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 한일합의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지원재단에 10억 엔(약 107억 원)을 출연함.

**라. 한·러 관계**

2016. 7. 16.

■ **러 총리, 한반도 대규모 위기 가능성 점점 현실화(연합뉴스)**

- 러시아 총리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 확산을 경고하고 나섬.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총회 연설에서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의 군비 경쟁 강화와 핵비확산 체제 약화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한반도에서 대규모 위기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상황이 관련국들의 군사적 대응으로 한층 악화하면서 한반도가 대규모 위기의 진원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표시였음. 러시아는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가 아태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고 한반도 위기 상황 해결에 장애가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7. 18.

■ **남중국해 갈등, 미중 해군사령관 베이징서 회동(연합뉴스)**

-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결로 남중국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 미중 해군 고위당국자가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할 예정임.
- 18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과 미 해군신문 등에 따르면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이 17일부터 나흘간의 중국방문 일정에 돌입함.
- 양국은 이번 접촉에서 PCA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교환하는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굳어진 미중 군사대결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당국은 아직 리처드슨 일행의 방중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6. 7. 19.

■ **중사령관, 美사령관에 “도발 무섭지 않아…인공섬 포기 안 해”(연합뉴스)**

- 우성리(吳勝利) 중국 해군 사령관이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 참모총장과 만나 “우리는 절대로 남해(남중국해) 주권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함.
- 우 사령관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리처드슨 참모총장 일행과 만나 남중국해 주권은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우리당(중국공산)의 집권기초, 국가의 안전과 안정, 중화민족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20일까지 중국에 머무는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중국의 북해함대와 해군 잠수함 아카데미,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 등을 참관할 예정임.

2016. 7. 21.

■ **〈美공화 전대〉 中, 공화당에 견제구…근거 없는 비난 말라(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가 선출되자 중국이 공화당에 근거 없는 비난과 내정 간섭을 멈추라고 일침을 가하고 나섬.
- 이는 중국이 민감히 여기는 대만, 티베트, 남중국해 그리고 통상 문제 등에 비판적인 미 공화당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중국 때리기 대표 주자인 트럼프의 향후 대선 행보에서 중국과 관련된 자극적인 발언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하려는 사전 포석도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앞서 트럼프의 대중국 공세 발언에 대한 반응을 자제하던 중국 외교부도 지난 5월 트럼프가 사실상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미중 관계들)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2016. 7. 22.

■ **수치, 미국 앞서 8월 중국 방문 추진…미중, 수치모시기 각축(연합뉴스)**

- 미얀마 최고 실권자인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 겸 외무장관이 8월 중 중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일정 조정을 시작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2일 미얀마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이 관계자는 중국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8월 중순께 중국 방문을 목표로 일정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수치 장관으로서도 국내 소수민족 무장 세력들을 끌어 모아 평화회의를 개최하는데 일부 무장 부족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협력을 받아 내려는 계산이 있다고 풀이함.

■ **中 남중국해 관할전구, 연일 최신무기 공개…美 거남 위력 과시(연합뉴스)**

- 국제법정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군 남부전구(戰區)가 연일 신무기를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음.
-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지난 19일 관창룡(范長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남부전구 방문 모습을 전하면서 남부전구 소속 부대가 최신형 준 중거리 탄도미사일 ‘동풍(東風·DF)-16’을 다루는 모습을 내보냄.
- 중국의 해군 군사전문가 리제(李杰)는 “관영 매체가 보도한 무기는 모두 사거리가 1천500 km 이내의 단거리와 중거리인 방어용 무기”라며 “중국이 제한적인 전쟁역지력을 이용해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함.

나. 미·일 관계

2016. 7. 20.

■ **〈美공화 전대〉 日, 트럼프 후보에 “누가되더라도 美와 협력”(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데 대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논평함.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일동맹과 일본의 안보정책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일미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으로, 아시아 태평양,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자세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함.
- 스가 장관은 지난 5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트럼프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현실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하기 쉬운 사람 아닌가”라고 말함.

## 다. 미·러 관계

2016. 7. 16.

### ■ 미·러 외무 모스크바 회담 별 성과 없이 끝나(연합뉴스)

- 시리아 내 공동 군사작전 합의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간 모스크바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남.
- 러시아를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모스크바 도착 당일인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데 이어 1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회담을 벌였으나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함.
-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교전 당사자들 간 휴전 체제 지속 필요성과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알누스라 전선(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등 시리아 내 테러단체 척결 중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침.

## 라. 중·일 관계

2016. 7. 17.

### ■ 中, 남중국해 우군 캄보디아에 6천억 원 지원…中日, 구애전(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이 15~16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ASEM)에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을 상대로 뜨거운 '남중국해 외교전'을 벌임.
-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12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린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중국은 '돈 보따리'까지 풀며 판결 무력화를 위한 지지세력 구축에 나섬.
-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에 미국과 함께 발을 담근 일본은 미국을 대신해 '반중 연대' 강화 행보를 함. 남중국해를 둘러싼 '강 대 강' 외교전은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오는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됨.

2016. 7. 18.

### ■ 中해경선 센카쿠해역 진입…남중국해 영유권 中패소 결정후 처음(연합뉴스)

-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18일 중일 영유권 갈등 지역인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 다오<釣魚島>) 열도 12해리(약 22km) 해역에 진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이날 오전 10시께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센키쿠 12해리 해역에 진입한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하고 해역(12해리)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교도는 전함.
- 일본은 PCA 판결이 나온 직후 중국 측에 수용을 촉구했고, 그런 일본에 대해 중국은 반발함.

2016. 7. 20.

■ **교도 “일본, ARF 계기 중국과 외교장관 회담 추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중국과의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다음 주에 ARF 참석 차 라오스를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임.
- ARF에는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이 참석하며 기시다 외무상과 이들의 접촉 또는 정식 대화 가능성도 주목됨.

**마. 중·러 관계**

2016. 7. 21.

■ **러 전문가 “러 중, 사드 한국배치 대응해 통합MD 구축 검토해야”(연합뉴스)**

- 미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의 한국 배치에 대응해 러시아와 중국이 통합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가 주장함.
- 러시아의 유력 군사전문가인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독립국가연합(CIS: 옛 소련국가 모임) 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리아노보스티 통신사에서 열린 사드 관련 러·중 전문가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힘.
-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사드 한국 배치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7.18	통일연, 北고문실태 공개...채찍질·비둘기자세·전기충격까지(연합뉴스)
	7.19	유엔 北에 “납북 KAL기 여승무원 등 14명 정보 달라” 요청(연합뉴스)
		링크, 탈북자 미국 정착 돕는 한글책자 발간(자유아시아방송)
		미 하원 청문회, 북 인권문제 집중 다뤄(자유아시아방송)
	7.20	美인권단체, 한국 드라마 담은 USB 1천개 북한에 살포할 것(연합뉴스)
7.21	[단독] EU, 北 노동자 강제노동·인권침해 진상파악 착수 공식 확인(연합뉴스) 수전 솔티, 탈북자 유인납치 주장 사실 아냐... 국제사회 탈북자 문제 관심 기울여야 (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7.16	北, 억류 미국인 인질 영사접견도 차단한 듯...美 즉각 허용하라(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7.18	북한인권단체, 유엔에 “강제복송 탈북민 생사확인 청원하겠다”(연합뉴스)
	7.21	민변, 北정치범 수용자 구제요청 사건 변론키로(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7.16	탈북자 자처 20대男, 日야미구치서 발견돼 일본 정부에 인계(연합뉴스)
대북지원	7.19	올 유엔 대북 지원금 ‘예산 22%’에 그쳐(자유아시아방송)
		세이브 더 칠드런, 북한 재난구호 추가지원(자유아시아방송)
	7.20	유엔 ‘북한 주민 42% 영양 부족’ (미국의소리)
		카리타스, 대북제재 속 인도지원 ‘온실건설’ 순조(자유아시아방송)
7.22	독일 NGO, 북한서 내년 1월까지 새 식수사업(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7. 18.

#### ■ 통일연, 北고문실태 공개·채찍질·비둘기자세·전기충격까지(연합뉴스)

- 통일연구원은 18일 북한인권 실태 관련 정책회의를 열고 북한 교회소 등에서 자행되는 고문 실태를 공개함.
- 이상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군 당국이 조사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마다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
-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북한 교회소 실태’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강제송환 임신부의 경우 중국인 아이를 뱌다는 이유로 수감 전 강제낙태가 횡행한다”고 밝힘.
- 도경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북한인권: 변화와 지속성’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리비아, 러시아, 중국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 사례를 수집한 결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현지에서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임금 역시 상당 부분 계획분이라는 명목으로 상납되며,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함.
- 아에리아 일본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 사무국장은 ‘러시아 연해주시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 현황과 인권’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3년까지 러시아에 3만 명 이상의 근로자는 파견한 것으로 추정함. 그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연간 200~3천 달러를 벌지만 북한 건설회사의 대표나 간부는 뇌물을 포함해 연간 5만~10만 달러를 번다”고 지적함.

2016. 7. 19.

#### ■ 유엔, 北에 “납북 KAL기 여승무원 등 14명 정보 달라” 요청(연합뉴스)

- 유엔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KAL기) 납치 피해 미귀환자 1명과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탈북자 등 총 14명에 대한 정보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함.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GEID·이하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들의 납북에 관한 사실 확인과 행방을 알려줄 것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VOA는 전함.

-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 ■ 링크, 탈북자 미국 정착 돕는 한글책자 발간(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2013년과 2014년 미국이 받아들인 난민은 각각 7만여 명에 이룸.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2006년 9명을 받은 것이 처음임. 난민자격을 부여 받은 탈북자들은 지난 6월말 현재 197명임.
- 이제 탈북자들도 미국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한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책자가 발간됨. 이 책자 안에는 미국 생활 정보와 난민신청 방법, 그리고 다양한 미국 정부가 주는 혜택 등 난민이 아니더라도 탈북자들에게 유용한 많은 정보가 포함돼 있음.
- 이 책자는 탈북자 지원단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링크(LiNK)가 지난 1년간 번역과 정보 수집을 통해 발간한 것임.

#### ■ 미 하원 청문회, 북 인권문제 집중 다뤄(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연방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포위당한 인권'이란 제목의 하원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하는 부분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국, 쿠바, 이란, 수단, 베트남 정권이 계속해서 자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정치권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함.
- 청문회를 주관한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경우에는 단순히 국가 이름을 언급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가 참혹한 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조지 부시연구소의 아만다 슈네처 국장은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와 연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힘. 조지 부시 연구소는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부시대통령센터의 산하 연구기관임.
- 이런 점에서 얼마 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과 다른 북한 관리들을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문제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가는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슈네처 국장은 평가함.

2016. 7. 20.

#### ■ 美인권단체, 한국 드라마 담은 USB 1천개 북한에 살포할 것(연합뉴스)

- 미국 인권단체가 우리나라 북한 관련 단체들과 함께 드론(무인기)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 1천개를 북한에 살포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함.
-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토르 할보르센 미국인권재단(HRF) 이사장은 이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함. 할보르센 이사장은 오는 23일까지 머물며 국내

북한 관련 단체들과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 노체인 정광일 대표도 지난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국제 인권행사 ‘오슬로자유포럼’에서 “희망을 담은 SD카드와 USB가 북한에 자유를 가져다줄 힘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음.

## 2016. 7. 21.

### ■ [단독] EU, 北 노동자 강제노동 인권침해 진상파악 착수 공식 확인(연합뉴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각)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힘.
- 집행위는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나 당사국에서 EU의 관련법을 어긴 사실이 파악되면 위반행위에 대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함.
- EU 차원에서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상파악에 착수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임.
- 브뤼셀의 외교소식통은 “EU는 그동안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회원국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이번 입장 표명은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함.

### ■ 수전 솔티, 탈북자 유인납치 주장 사실 아냐… 국제사회 탈북자 문제 관심 기울어야(미국외소리)

- 북한이 또다시 탈북자 ‘유인납치’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가인 수전 솔티 디펜스포럼 대표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솔티 대표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
- 지난 15일 탈북자 출신 고현철 (53)씨가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등장함. 고 씨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북한의 고아들을 납치해 한국으로 데려가려 했으며,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가인 수전 솔티 디펜스포럼 대표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함. 는 또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솔티 대표를 적극 돕고 있다는 주장도 함.
- 이에 대해 솔티 대표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함. 고 씨를 모를 뿐더러, 누군가를 납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 자신이 이끄는 단체는 비영리재단으로 국정원과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함. 솔티 대표는 고 씨가 북한의 강한 압박과 위협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라며, “모두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의 한국 귀환을 요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솔티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난민을 어디에 정착시킬지 세계 여러 나라가 고민하고 있지만 “탈북자의 경우 즉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말함. 솔티 대표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복송 되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때때로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함.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7. 16.

### ■ 北, 억류 미국인 인질 영사접견도 차단한 듯...美, 즉각 허용하라(연합뉴스)

- 북한이 자국에 억류 중인 미국인 인질들에 대한 영사 접견조차 차단한 것으로 알려짐.
-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인 인질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허용하고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외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의 안녕과 안전은 우리 국무부의 최우선 관심 사항”이라고 밝힘.
- 이어 “우리는 북한이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이행 약속을 준수해 지체 없이 미국 시민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7. 18.

### ■ 북한인권단체, 유엔에 “강제복송 탈북민 생사확인 청원하겠다”(연합뉴스)

- 북한인권 관련 단체인 북한인권증진센터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아 북한 인권침해실태 조사 보고서를 ‘유엔 강제구금 실무반(WGEID)에 제출할 예정임.
-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3국으로 탈북했다 강제복송된 피해자들이 북한에서 겪은 강제구금 또는 이들의 실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아울러 두 번의 강제복송 경험이 있는 광정애(62)씨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아들 이세일(39)의 생사확인을 위한 청원서도 북한인권사무소에 제출할 예정임.

### ■ 민변, 北정치범 수용자 구제요청 사건 변론키로(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탈북자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을 구제해달라며 낸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위임받아 변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힘.
- 민변은 “청구인들에게 법적 어려움을 설명했지만 이들이 변론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유지

했다”며 “청구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북한 가족들의 인권과 생명권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이 사건을 민변 회원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함.

- 남북자가족모임도 7일 단체 소속 8명 명의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민변이 맡아달라며 신청서와 위임장을 냈. 민변은 이들도 조만간 면담할 계획임.

2016. 7. 21.

#### ■ 북한 정치범 수용소, 국제사회 관심과 압박에 수감자 감소(미국의소리)

- 한국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배포한 북한인권 실태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는 모두 6 곳으로 북창 18호 수용소와 요덕 15호 수용소, 개천 14호 수용소, 명간 16호 수용소, 청진 25호 수용소, 회령 22호 수용소 등임.
- 이 가운데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회령 22호 수용소는 수년 전 폐쇄됐으며 북창 18호 수용소는 이전한 것으로 파악됨. 수용소 폐쇄와 이전을 겪으면서 15-20만 명이던 수감자도 8-12만 명으로 줄었음.
- 통일연구원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감소 원인으로 수용소 내 강제노동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철저한 통제로 인한 새로운 정치범의 감소,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부담감 등을 꼽음.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한동호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함.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7. 16.

#### ■ 탈북자 자처 20대男, 日야마구치서 발견돼 일본 정부에 인계(연합뉴스)

- 탈북자를 자처하는 20대 남성이 동해에 접한 일본의 한 도시에서 발견돼 현지 경찰에 인계됨.
- 교도통신에 따르면 16일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나가토(長門)시에서 자신이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주민에게 발견돼 현지 경찰이 보호 중임.
-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노상에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남성을 보호 중임.
- 이 남성은 한국어로 “북한에서 탈출했다”고 말함. 그는 자신이 1990년에 출생했으며 배에서 바다에 뛰어든 후 헤엄쳐서 해안에 도착했다고 주장함.
- 일본 정부는 남성이 탈북자로 판명되면 북한인권법에 따라 그가 제3국으로 건너가기를 희망하는 지 등을 파악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임. 당국은 그가 군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5. 대북지원

2016. 7. 19.

### ■ 올 유엔 대북 지원금 '예산 22%에 그쳐(자유아시아방송)

- 대북 지원의 장기화로 국제사회가 이른바 '기부자 피로 현상(donor fatigue)'을 보이면서 유엔이 대북 인도적 지원금 모금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30일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 기금 예산 중 22퍼센트만이 확보돼 예산 부족이 심각하다고 밝힘.
- 유엔은 지난 2월과 3월에 중앙긴급구호기금 즉 CERF를 통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자금부족긴급지원금' 8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6월말 현재 필요 예산액에 턱없이 부족한 22퍼센트를 모금하는 데 그쳤다고 밝힘.
-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달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16년 지역별 주의 모델 (Regional Focus Model)'이라는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높은 주의(High Focus)가 요구되는 국가'로 분류하고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함.

### ■ 세이브 더 칠드런, 북한 재난구호 추가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에 본부를 둔 세이브 더 칠드런은 북한의 지원지역에 있는 공공건물의 재난대비를 위해 미화 약 8만 4천 달러의 추가 지원함.
- 이 단체의 엠마 폼프렛 대변인은 학교와 마을 공동 시설을 개보수해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세이브 더 칠드런은 함경남도 영광군과 신포군을 중심으로 식수 시설 개선과 하수도 설치, 의료 지원 등 통합환경보건과 식량 지원의 두 가지 지원 사업을 5년째 이어가고 있음. 세이브 더 칠드런은 유럽연합의 자금으로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비정부구호단체 중 하나로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6대 국제구호단체는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와 프리미어 위장스, 독일의 세계기아원조, 아일랜드의 컨선,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고 벨기에 즉 벨지끄의 핸디캡 인터내셔널임.

2016. 7. 20.

### ■ 유엔, '북한 주민 42% 영양 부족' (미국의소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19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 주민 41.6%가 영양 부족 상태라고 밝힘. 북한 주민 1천50만여 명이

식량이나 다양한 영양소 섭취 부족 등으로 인해 영양 부족을 겪고 있고, 이것이 특히 산모와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임.

- 유엔은 또 240만여 명의 북한 임신부와 수유모, 5세 미만 어린이 등이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고, 170만여 명의 어린이가 폐렴이나 설사 등 질병에 걸릴 위험에 있다고 밝힘. 이 같은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유엔이 책정한 예산은 1억2천200만 달러임. 하지만 6월 30일 현재 모금액은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22% 에 불과하다고 유엔은 밝힘.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 집계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19일 현재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모금된 금액은 3천790만 달러임. 유엔에 따르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 카리타스, 대북제재 속 인도지원 ‘온실건설’ 순조(자유아시아방송)

- 국제구호단체인 독일의 카리타스는 20일, 북한의 결핵 및 간염 환자들을 위한 온실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힘.
- 최근 북한을 다녀 온 카리타스는 현재 강원도와 자강도, 그리고 함경남도에 11동의 새로운 대형 온실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낡은 지붕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노후한 온실 8동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덧붙임. 특히 평안남도 안주 지역에 새롭게 들어선 결핵관리센터 옆에도 새 온실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함.
- 카리타스는 강원도 원산에 있는 간염전문병원 옆 온실에서 전통 간염약 제조를 위해 도라지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사진과 함께 설명함.
- 한편 독일 카리타스는 지난 4년 동안 북한에 50여동에 가까운 태양열 온실을 만들고, 그곳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을 환자 치료시설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2016. 7. 22.

#### ■ 독일 NGO, 북한서 내년 1월까지 새 식수사업(연합뉴스)

- 독일의 한 비영리단체가 북한에서 새로운 식수사업을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VOA는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 벨트홍게르힐페(세계기아원조)가 지난달 강원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새 식수사업을 시작했다”며 “평안도 운산 향산군, 구장군과 강원도 안변군에 우물을 판 뒤 수동 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전함.
- 울리크 쉘렌커 벨트홍게르힐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총 21만유로(약 2억7천만 원)이며,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설명함.